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웃음 보약을 먹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화이팅!!



萬事無如爲善樂



홍성균
신한카드(주) 사장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 중 만사무여위선락(萬事無如爲善樂)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집안 어른들께서는 어린 제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을 떠올리면서 과연 나는 어른들이 바라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부나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을 떠올리고는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라고 외면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도 선을 행하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작은 정성이 더 아름답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회의 '사랑 발전소'이면서, 개인적으로는 '문(文), 사(史), 철(哲)'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항상 감동적인 이야기(文)가 있으며, 자신이 사랑을 나누는 사실의 기록(史)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철학(哲)이 있다는 얘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文, 史, 哲을 가꾸는 일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균

지금이 바로 행복...

다연이가 '조직구증식증'으로 진단받은 2005년 9월... 이틀 동안 수많은 검사를 한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기 증상, 무기력증이 있었어도 잘 웃고 해서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 날도 병원가기 직전까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던 다연이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 후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피검사, 소변 검사를 비롯한 많은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전해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기도 잠시, 선생님은 바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오진일거야 그 병원 가면 다시 진단이 나올 거야'하고 생각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만 자는 다연이를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병원을 옮긴 뒤 확실히 '조직구증식증' 판정을 받고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연이 걱정, 다연이 동생 걱정, 돈 걱정, 여러 걱정 속에 낯설고 어리둥절한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 다연이가 병을 떨치고 옛날처럼 뛰어다니도록 하자! 활발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고 매일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차츰 병원 생활도 익숙해지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갔지만, 정맥주사를 꽂을 곳이 없어 고통스럽게 발버둥치고 힘든 치료를 건디는 다연이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위모까지 달

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다연이의 병을 실감하기도 했지요. '저 어린 게 뭐 죄라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가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연이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골수검사 결과 조직구가 아직 남아있지만 외래로 치료를 계속 받으면 없어질 것이라 하였고 기다리던 퇴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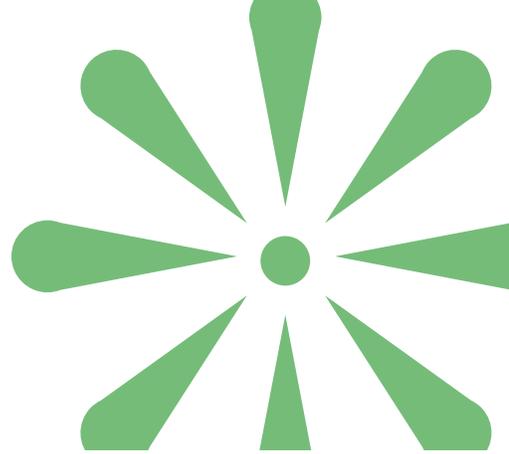
집으로 돌아와 어린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너무 어려 다연이는 충분히 쉬기도 힘들었고, 어린 동생을 이기지 못해 울고불고 전쟁이 따로 없었지요.

지금은 먹는 약도, 외래 치료 횟수도 줄고 점점 나아지는 다연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날쌔 돌아다니는 아니지만 활발한 모습도 되찾고

엄마 일도 도와주는 다연이에게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다연이가 아프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한, 힘든 세상이지만 너무 고맙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 항상 간직하고 받은 사랑 배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금 이런 제 마음과 두 아이를 돌보는 생활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쁘고 어린 우리 천사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연이 어머님께서는 정성스런 편지와 함께 귀엽고 깜찍한 머리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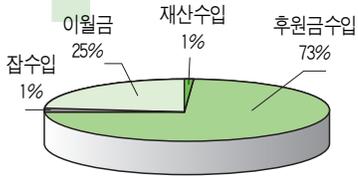
2006년 보건복지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지원연령	18세 미만(1987. 1. 1. 이후 출생자)	18세미만(1988. 1. 1. 이후 출생자) * 2005년 지원자 중 만 18세가 도래한 환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지원기간을 2006. 12. 31일까지로 연장	확대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보인부담액 비급여 본인부담액 골수기증관련 의료비 합병증관련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보인부담액 비급여 본인부담액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합병증관련 의료비 암진단시 검사비용 의약품 구입시(의사소견서) * 지원제외: 간병비, 보호자 식대 	세부항목 명시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혈병 최대2천만원 기타암종 최대1천만원 * 골수이식시 최대2천만원 진료비 총액 중 후원금, 사보험 수령액 공제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혈병 최대2천만원 기타암종 최대1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2천만원 진료비 총액 중 후원금 공제후 지원 	사보험수령액 반영 삭제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소득(만원/월) 2인 이내 231, 3인 272, 4인 341, 5인 391, 6인 이상 443 재산(백만원) 2인 이내 165, 3~4인 190, 5인 이상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수급자 소득(만원/월) 2인 이내 231, 3인 282, 4인 351, 5인 406, 6인 이상 463 재산(백만원) 2인 이내 165, 3~4인 198, 5인 이상 225 	선정기준 변경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 영수증(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비영수증(원본)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수정

▶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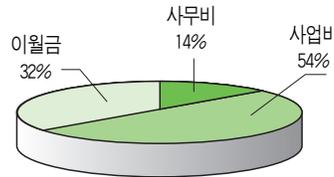
2005년 결산보고

1. 수입



재산수입	18,722,301
잡수입	10,706,024
보조금수입	2,000,000
예수금	264,310
후원금수입	1,524,284,773
이월금	513,568,956
합계	2,069,546,364

2. 지출



사무비	295,049,675
비품구입비	5,596,000
사업비	1,098,314,685
이월금	668,582,474
기타	2,003,530
합계	2,069,546,364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천사백이식비 지원	37(명)	167,978,940	15.29	73.39
	새생명통장 지원	85(명)	108,000,000	9.83	
	특별기금 지원	117(명)	374,666,009	34.11	
	헌혈증 지원	4,995(매)	39,960,000	3.64	
	부모회 지원	-	114,216,050	10.40	
	추진경비	-	1,283,490	0.12	
정서적 지원	환아집 단합동	-	9,336,000	0.85	7.07
	캠프	1(건)	7,986,140	0.73	
	가족행사	9(건)	47,686,621	4.34	
	가발지원	15(명)	11,600,000	1.05	
	추진경비	-	1,077,150	0.10	
정보 지원	교육자료발간	4건/4,000(부)	5,666,000	0.52	2.45
	상담	5,409(건)	2,409,160	0.22	
	홈페이지운영	-	7,006,526	0.64	
	소식지발간	4회/40,000(부)	10,978,000	1.00	
	추진경비	-	757,800	0.07	
연구지원	연구지원	-	50,400,000	4.59	4.59
기획사업	직원교육	-	3,526,430	0.32	6.45
	홍보사업	-	10,400,250	0.95	
	이식비후원회원관리	11,482(명)	13,330,860	1.21	
	운영비후원회원관리	2,533(명)	7,044,000	0.64	
	유관단체관리	-	3,251,890	0.30	
	자원봉사자관리	-	3,455,860	0.31	
	쉼터후원회원관리	-	205,920	0.02	
	후원개발비	-	21,723,160	1.98	
	추진경비	-	7,875,740	0.72	
	공공요금쉼터	(6개소)	21,659,229	1.97	
쉼터운영사업	쉼터이용사업비	-	15,398,540	1.40	6.05
	쉼터장비유지비	-	12,129,740	1.10	
	추진경비	-	17,305,180	1.58	
	합계		1,098,314,685	100	

* 헌혈증지원과 가발지원 현황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 경제적 지원 중 부모회 지원 항목에는 물품 후원(인형)이 포함된 것임.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여의도 성모병원 생활잔치...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아이들에게 친절
 한 미소로 대하는 상큼 발랄한 자원봉사자 한 분
 이 눈에 띄었습니다.
 완치자이며 미래의 사회복지사라고 본인을 소개
 하는 정보람 자원봉사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
 습니다.

시작

“저.. 저도 이런 경우는 학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로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1996년 1월 온몸에 핏기가 없어지고, 열 발자국 이상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던 끝에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았다.
 평소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언니와 동생에 비해 건강했
 던 나는 이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항상 건강했던 딸이었기에 그냥 좀 황달기가 있
 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었다. 의사선생
 님께서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하시며 말을 잊지 못
 하셨다. 작은 동네 작은 종합병원에서 재생불량성빈혈 또
 는 소아암을 진단받은 아이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 큰 병원으로,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갔고 결국 여의
 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치료과정이 순탄
 치 만은 않았다. 언니와 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을 여건이
 되지 못했고, 약물치료 종결 후 퇴원 3일 만에 장으로 합

병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 와야 했다. 그때 정말 사경을
 헤매며 헛소리까지 했고, 의사선생님들은 내일이면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까지 내리셨다. 합병증을 어렵게 이겨
 내고도 계속 혈액 수치는 모두 좋지 않았고, 오죽하면 당
 시 함께 통원 치료하던 병원 친구들 중 제일 상황이 좋지
 않은 아이로 인식될 정도였다.

명

그런 여러 치료 과정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나의 몸이 아
 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의 나의 마음이었다. 당
 시 11세였던 나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내 앞에선 항상 밝
 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비친 근심과 걱정의 표정을 나는 볼 수 있었다. 특히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아버지께서 나 몰래 뒤에
 서 우셨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또 지방에서 병원을 오가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그래도 수많은 계단 앞에서는 당연한 듯이 나를
 업고 오르내리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혈액수치가 좋지 않
 을 때 실망하시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구석의 어려움을 느꼈고 나는 아직도 그 느낌
 을 잊을 수가 없다.

힘들었던 건 부모님에 대한 마음만이 아니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들은 긍정적 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방해하기도 했다. 힘든



정 보 란

1986년 2월 14일생
1996년 1월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2000년 치료종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심리학 복수전공) 3학년 재학 중



치료 중이었지만 그 어느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지만, 내 마음이 얼 굴만큼 항상 밝은 것은 아니었다.

긍정의 힘!!

가족과 나의 신앙심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또한 꼭 나아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 힘으로 힘든 순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

DREAM COME TRUE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나는 멋진 의료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환자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의료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심리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상담심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있다. 지금도 내가 치료를 받았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일잔치, 풍선아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 학원 청취반 조교활동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요즘 나의 근황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사람.. 아직도 기

초체력이 약한 탓에 가끔 아픈 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꼭 멋진 한의사가 되겠다는 동갑내기 남친친구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갖도록 권하고 싶다. 아픈 채로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생활을 하다보면 점점 꿈을 잃어가게 되고, 나올 수 있다는 의지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꿈을 위해서 '꼭!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꼭!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치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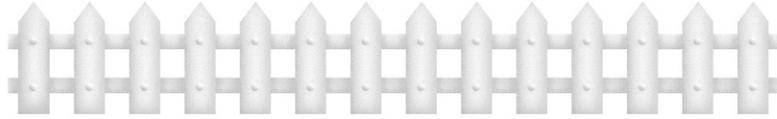
"우리 친구들! 병을 이겨내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잊지 않도록 약속해요~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다짐일 거예요. 모두모두 파이팅~!"

☆ 재생불량성빈혈 ☆

원인불명이나 방사성조사, 벤젠이나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 등에 의한 골수 내의 적혈구 생성의 감소로 순환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어 일어난다. 범혈구 감소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혈구 뿐 아니라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한다.

[자료출처:의학용어, 2003]

헌사랑의 집에서는...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 집

폭풍우치는 밤에~

2월의 첫날,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가족들은 대원C&A 포미커뮤니케이션의 후원으로 '폭풍우치는 밤에' VIP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이가 좋을 것 같지 않은 늑대와 염소가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아슬아슬한 이야기... 바로 애니메이션 '폭풍우치는 밤에'의 주제였습니다.

영화감상 전 맛있는 오므라이스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오랜만에 가족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주신 대원C&A 포미커뮤니케이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임희은 >

지난 2월 21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소아암 환아와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교육, 생일잔치, 풍선아트 가 있었습니다.

소아과 조빈 교수님께서 많은 보호자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 과정 중의 영양에 관한 주제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자가 부족해 간이의자를 이용해야 했다는... ^^

같은 시간, 우리 친구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풍선아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선드림선교회 봉사자 분들의 도움으로 하트, 포도송이, 칼을 만들어 보았지요. 매달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예쁜 풍선아

트를 해주시는 미선드림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생일 잔치 시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보호자분들을 축하해 드렸답니다. 특히, 지난 달 부터 빨간모자 여의도 지점에서 맛있는 피자를 후원해 주셔서 더욱 즐겁고 풍성한 생일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빨간모자 여의도 지점 오승표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

매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친구들과 웃으며 생일잔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하답니다. 함께해 주시는 사랑나눔회 분들과 여의도 성모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담당 사회복지사 박희선 >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 집

2005 크리스마스 파티

경북대학병원과 대구카톨릭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씩씩하게 해내고 있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치료를 무사히 마친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 입학 앞둔 배순찬군이 친구 정진웅군과 함께 멋진 마술공연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올해엔 병실에서 보내야 하는 친구들이 내년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른 아픈 친구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며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힘을 북돋워주신 신한카드(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 집

~~ 희망가득, 소망가득 완치대축제 ~~

네 번째 완치대축제 행사가 지난 12월 29일 열렸습니다. 부산지역 4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37명의 환아들이 완치메달을 전달받고,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완치메달을 받는 아이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부모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1년 전 자신에게 보낸 타임캡슐 속의 편지를 개봉하여 자신의 희망에 대한 글을 보며 즐거워하는 환아들을 보면서,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 집

미니도서관 개관~

드디어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집에도 '소아암 관련 미니도서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관련 국내외 각종 의학서적과 시청각 자료, 어린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서적, 건강서적 등 총 500여점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아암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소아암 가족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책을 병원으로 직접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집 ☎ 061) 375-7671

<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

* 설날 풍경

설날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은 소아암 가족 쉼터인 우체국 헌사랑의집에서 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쓸쓸하지만은 않은 설날이었답니다. G마켓 후원소핑을 통해 지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은 넉넉한 설날 음식도 준비하고, 윷놀이도 하고 비록 가족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G마켓 후원소핑에 참여해주신 판매자와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1 2006년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선정

우체국 이익의 사회 환원과 가치경영의 실천으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2006년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으로 '우체국 헌사랑의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금(160,000,000원)은 우체국 헌사랑의집의 시설환경 개선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치료비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의 치료의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롯데닷컴 도서바자회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의 든든한 후원처인 (주)롯데닷컴(www.lotte.com)은 2005년 종무식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도서바자회로 대신하였습니다. (주)롯데닷컴의 전 임직원이 참가해 도서를 기증하고, 이를 (주)롯데닷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분들께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재단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주)롯데닷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서장훈 명예홍보대사의 조용한 선행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명예홍보대사 농구선수 서장훈님. 바쁜 경기 일정에도 늘,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으셨나봅니다. 외부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20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서장훈 명예홍보대사님의 그 세심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4 한국남동발전(주) 사랑의 PC 기증



2005년 희망나무심기 후원 및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이번에는 '희망의 PC'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낯고 느리기만 했던

컴퓨터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 아니었던 사무국은 커다란 모니터와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본체 덕분에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한국남동발전(주) '사랑의 PC 기증'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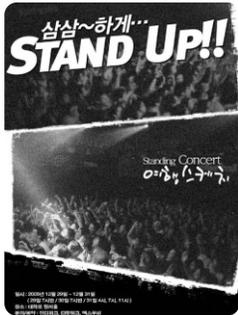
5 LG전자 헌혈증, 청소기, 전자레인지 기증



LG전자에서는 헌혈 행사를 통해 LG전자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헌혈증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헌혈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쉼터에서 필요한 가전제품 또한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때 마침 고장 난 청소기를 깔끔하고 예쁜 청소기로, 우중충하던 전자레인지로 빛나는 새 전자레인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LG전자가 다녀가신 후 쉼터는 마술을 부려놓듯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LG전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6 재즐커뮤니케이션즈(주)의 여행스케치 콘서트 티켓 기증



재즐커뮤니케이션즈(주)는 2005년 12월 여행스케치콘서트 티켓을 재단의 소아암 어린이 후원자 분들께 기증해 주셨습니다. 평소 소아암 어린이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꺼이 여행스케치 콘서트 티켓을 기증해 주신 재즐커뮤니케이션즈(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 아름다운 루이까또즈

루이까또즈(주)태진인터내셔널과의 2004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현재에도 매달 소아암 어린이의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5년에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길 원하시며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시며, 사진 찍는 것을 사양하셨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이어지는 루이까또즈(주)태진인터내셔널의 아름다운 선행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8 웃찾사 관람

조금씩 조금씩 봄 기운이 오르던 2월 24일. 우리 가족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SBS에서 마련해 주신 차를 타고, 웃찾사 녹화가 진행되는 SBS 등촌 공개홀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SBS에서 준비한 선물을 웃찾사팀이 직접 나눠주셨지요. 선물을 한보따리 든 우리 친구들은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에 앉아 1시간 30분 동안 신나

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보약'이라고 하지요. 1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웃음 보약'을 먹은 우리 아이들, 2006년은 누구보다도 건강히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공연 편안히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SBS와 웃찾사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별 미술치료 환아 모집

미술표현활동을 통해 소아암 투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아이들 스스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치료 의지를 북돋워주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환아

* 일시 : 2006년 3월 ~ 2006년 12월

* 횟수 : 총 12회기 / 주 1회

* 신청 및 문의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전화 02) 704-8310 / 02) 363-7671

메일 yeouido@kclf.org

* 미술치료는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10 헌혈증소식

하나, **고려여행사 직원**분들께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모이주신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두울, 올해도 어김없이 **명지전문대학 산업시스템경영과 교수님**과 **학생**여러분들께서 모이주신 헌혈증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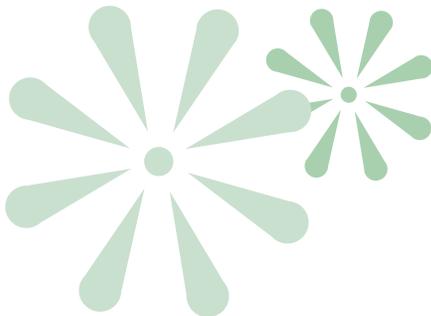
세엣, **벼룩시장**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모이주신 600여장의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네엣,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직원**분들께서는 지난해 연말 헌혈행사를 통해 모이주신 헌혈증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증해 주셨습니다.

다섯, **한국야쿠르트**는 사내봉사단체인 **"사랑의 손길퍼기회"** 발족 30주년을 맞아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통해 모이주신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섯, **LG전자 직원**분들께서는 헌혈행사를 통해 모이주신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는 정성 가득한 헌혈증,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헌혈증을 기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특별기금지원 환아 소개(2005. 12.~2006. 2.)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700만원

차귀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인천) : 1,000만원
 박현정(급성림프구성백혈병/단국대학교병원/경기) : 300만원
 김선중(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 300만원
 김두환(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400만원
 임화경(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구) : 700만원 / 지정기탁

▶ 토탈소프트뱅크 기금 - 500만원

김병우(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 일공이삼(지정기탁) - 500만원

나정현(뇌종양/화순전남대병원/광주)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각 500만원

이동연(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 문예천(재생불량성빈혈/세브란스병원/서울)
 이준석(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우체국 헌사랑기금 - 각 300만원

채주영(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정준영(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김두환(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남), 임지순(골육종/세브란스병원/경북),
 반왕윤(내배엽동종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박소영(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대전),
 노태연(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부산), 노현우(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조다혜(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경기), 주실송(원시신경외배엽종양/세브란스병원/대구),
 이상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 차차게살자 기금 - 300만원

이민지(만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광주)

▶ 허영구기금 - 200만원

전진경(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이화여대 노동조합 - 120만원

장권희(간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이래기금 - 100만원

우승호(급성혼합형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남)
 장윤정(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 배재열기금 - 100만원

김진성(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남)

▶ 박은솔기금 - 100만원

임정수(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강원)

▶ CJ홈쇼핑 - 243만원

우승호(급성혼합형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남)

▶ 익명 후원자(매월 50만원* 6개월, 지정기탁)

유사곤(림프종/서울아산병원/경기), 김여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장선희(급성골수성백혈병, 상의세포종/서울아산병원/대구)

▶ 하나증권 - 매월 30만원(8개월간)

전진경(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소복이의 쑥스러운 말”

사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자신도 모자라서 남에게 좋은 얘기를 해 줄 처지가 못 되는데 말이죠.
불만쟁이때다가 가끔 아주 차가운 소리도 잘하구요.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소식지에 그림을 그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난 아는 게 너무 없다고 했는데, 그냥 따뜻한 얘기를 그려달라고 하더군요.
아픈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제 자신도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식지에 실린 글 하나를 읽고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이 친구, 나보다 몇 배는 밝구나... 했죠.
제대로 도움은 못되겠지만 조금이나마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구요. ^^

여전히 저는 별로 좋은 얘기는 잘 못하네요.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럴 테니, 제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소복이(이현주)작가님은 2004년 겨울호부터 소식지의 삽화작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늘~감사드립니다.



▶ 후원방법

1. <http://www.arumin.co.kr> 접속
2. 메인 페이지 상단 '기부네트워크' 클릭
3. 기부처 안내 클릭
4. 아름다운기부처 검색창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입력
5. 기부하기

5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캠페인은 2006년에도 계속됩니다.

내 작은 도움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일까요? KT 캠페인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에 참여하시면 집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금의 일정액이 적립

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신청방법

- 하나, 무료 전화 1516으로 전화하기
두울,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6 맘스 다이어리 엔젤포인트



육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육아쇼핑몰인 [맘스쇼핑몰]에서 고객이 물

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엔젤 포인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맘스다이어리 내 쇼핑물 가는 방법 >

1. <http://www.momsdiary.co.kr/> 클릭
2. 홈페이지 상단 우측 '쇼핑몰' 클릭
3. 물건 구입
4. 발생한 '엔젤포인트'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

오랫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는 나눔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싸이월드 미니홈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타운**
(<http://town.cyworld.com/kclf>)

재단의 1촌이 되어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리고, 소아암 어린이의 수호투사가 되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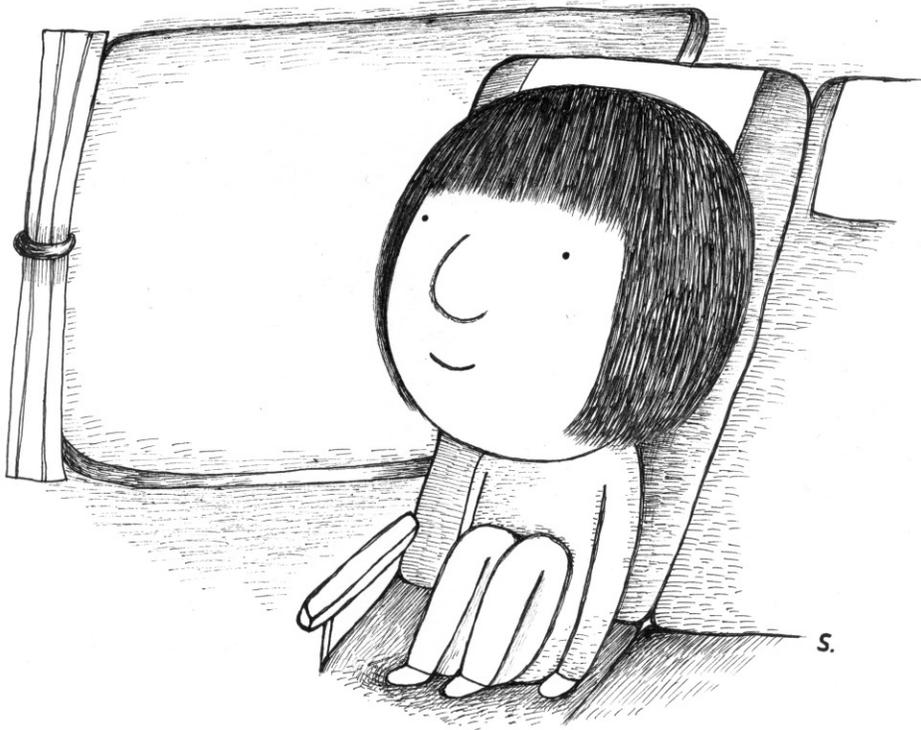
*** 해피빈의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해피로그~**
재단의 해피로그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주)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주)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계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 The Fine~ 파인카드**
2006년에도 계속될 'The Fine 카드'의 나눔 문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건을 구입하신 후 꼭~ 마일리지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가세요~
→ 마일리지를 기부하셔도 고객님의 마일리지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여행 다녀왔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말이죠.
 오랜만에 기차도 타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고향집도 하고,
 ...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뫼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5. 12. 1. ~ 2006. 2. 28. / 가나다 순입니다)

김경희, 김은영, 김태현, 김현규, 남형기, 박대환, 서동식, 서양영, 신영희, 신혜련, 안국환, 원진희, 유중실, 이다운, 이주영, 전성집, 전해영, 정점선, 정호원, 최연숙

▶2006년 2월 28일까지 752분이 한뫼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만세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5. 12. 1. ~ 2006. 2. 28. / 가나다 순입니다)

고원태, 곽이화, 권소영, 김상미, 김수진, 김억수, 김영수, 김영환, 김현규, 김화현, 마영희, 박재은, 유윤한, 이경화, 이상욱, 이영민, 이영선, 이태호, 이현주, 이화영, 임영수, 전선영, 정인숙, 채승훈, 최경희, 최낙현, 하상욱, 한정탁

▶2006년 2월 28일까지 1,811분이 만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001-01-2353-890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농협 : 029-01-176943
우체국 : 012989-01-003327
조흥은행 : 310-03-0023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습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 (☎ 02-766-7671~3)를 주시거나 E-mail (cancer@kclf.org)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2005.12. - 2006. 2.)



임화경 - 6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구
2006년 1월 제대혈이식시행



김정수 - 100만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대전
2006년 제대혈이식시행예정



박소연 - 7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2006년 12월 제대혈이식시행



김병우 - 5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2006년 1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행

[안내] 고비용의 이식비 마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최고 이식비 지원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래 이식비 지원신청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의료보험종류 이식종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보험
	승인	미승인	승인	미승인	
자가조혈모세포이식	45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700만원
타인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700만원
퍼징비용	600만원				

2006년 적용

의료보험종류 이식종별	의료급여 1,2종	의료보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700만원	1,000만원
타인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1,000만원	
퍼징비용	600만원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6. 2. 28. 현재)

참여후원자 : 4,527명 구좌수 : 19,784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5. 12. 1. ~ 2006. 2. 28.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농협 CMS	강민주, 국진영, 권순철, 김근태, 김상동, 김수진, 김윤숙, 김정임, 김종열, 김주성, 박선희, 백선현, 송가영, 이은옥(이태근), 이현숙, 임미라, 임종렬, 전병석
국민은행 CMS	강혜원, 김경석, 김자연, 문철준, 박수준, 박인혜, 박지연, 어은실, 천수테이프(주), 최은정, 하태욱, 허양선
조흥은행 CMS	김영민, 김현화, 박성규, 박소현, 박찬진, 백지연, 변원주, 서영미, 세영실업(주), 심성림, 윤선영, 유정림, 이은혜, 이찬복, 이현주, 정현석, 허유민, 황진선
외환은행 CMS	강태현, 김미진, 김혜원, 양광일, 여승민, 윤정희, 이점순
우리은행 CMS	김성훈, 대림아이앤에스(주), 방수원, 이소정, 임인구, 임채영, 장미라, 정숙자
하나은행 CMS	김양희, 박미향, 박병민, 서수경
신한은행 CMS	박성용, 박진수, 박춘희, 한중용
한미은행 CMS	백명자
부산은행 CMS	강수일, 김지윤
우체국 CMS	김주훈
대구은행 CMS	권선혁
경남은행 CMS	김기진, 김순연, 윤종식
광주은행 CMS	서진숙
제주은행 CMS	현진욱
기업은행 CMS	허경
수협 CMS	홍지상
지로	이다영, 이다혜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	514-07-0175564	광주은행	200-107-315315	국민은행	031-01-0414-356	기업은행	090-000260-04-022
농협	029-01-170940	대구은행	004-05-179828-001	부산은행	070-01-021379-8	신한은행	394-01-000694
외환은행	141-22-00799-6	우리은행	112-04-112571	우체국	012989-01-003313	제일은행	225-20-385050
조흥은행	367-01-192434	하나은행	144-121835-00105	한미은행	100-59711-251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재단사무국으로 전화(02-766-7671 ~3)를 주시거나, E-mail(cancer@kclf.org)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5. 12. 1. ~ 2006. 2. 28.)

고려여행사(100)	권진욱(3)	김경미(3)
김명호(3)	김영건(30)	명지전문대학 산업시스템경영과(100)
박승호(8)	벼룩시장(593)	송민주환아모(248)
수원새벽교회(18)	오종홍(1)	이강묵(17)
이근희(8)	전하민(6)	조경철(13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60)	한국아쿠르트(253)	한상덕(5)
현하욱(24)	황준하(1)	LG전자(270)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5년 12월	김영미 2,000,000	새봄유치원 461,000	서울한강로타리클럽 780,000
	이정배 3,000,000	(주)롯데닷컴 1,094,300	
	(주)한코교역 5,000,000	청룡동금고 400,000	(주)태진인터내셔널 6,000,000
	G마켓 25,207,970	우리들의공간작은쉼터 304,200	
2006년 1월	강대현 142,090	김은순 120,000	서장훈 1,000,000
	신원희 1,000,000	(주)롯데닷컴 1,501,800	G마켓 9,800,840
2월	롯데닷컴 1,099,200	신한카드 10,210,668	임신자 100,000 G마켓 7,822,260

▶ 후원물품 (2005. 12. 1. ~ 2006. 2. 28.)

곽상철씨 양말	김민희씨 알로에 차	김상호 차	대원C&A 영화티켓(6)
박찬중 쌀, 김	빨간모자 피자	사랑터 식료품	새싹의소리회 김치냉장고
서성혁 고등어	손민기 굴(1박스)	오희경 컴퓨터(1)	오로라월드(주) 인형(4,825)
이지택 김치	이혜미씨 커피	정찬호祖父 김	(주)드림팩토리클럽 티켓(16)
제갈기태 참기름	LG전자 전자레인지	화순우체국 컴퓨터(1)	최영석 굴(2박스), 배(1박스)
한국남동발전(주) 컴퓨터(4) USB 청소도구		청소년위원회 축구공(580)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봄호는



동아제약주식회사
DONG-A PHARMACEUTICAL CO., LTD.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